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9월 29일 (제102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이틀 남았다

앗수르의 산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방성대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그들을 쳐서 유다를 구원하셨다(왕하19). 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군대와 마병의 소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왕하7).

하룻밤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하는 이유다. 지금은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기도하면 하룻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히 사로잡히겠고 베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5:4~6).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 사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왕하19:16) 한 것처럼,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미 40일 작정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왕하19:20)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월 1일 서울시청광장 집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고통과 환난은 순간 지나가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이 나라에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펼쳐 이루시도록 하자.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운 통일이다

지난 2016년 용산 전쟁기념관의 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할 때, 목사님은 왜 기도성회를 계속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자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도성회를 계속하시려느냐?' 나는 우리가 소원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내 많은 군대 동기들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순간에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던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쟁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내가 기도성회를 하

10대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무릎 꿇고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유일한 산성이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나 우방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했던 역사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

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사론의 꽃이 만발하는 그날을 이루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 하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는 10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의 기류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잘 알 것이다.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



는 이유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쳐갈 터전이 바로 국가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먼저 봉황불을 드는 것입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세요.

지금까지 세계를 100바퀴 이상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았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조차 대접을 받지만, 나라가 못살면 인권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을 슬하게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라 없이 떠도는 난민들의 삶을 보세요. 어찌 반세기만에 세계

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믿음의 애국동지 여러분, 이것이 애국이 아니고 무엇이 애국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에서 서서 꿈꾸는 듯한 평화통일의 대역사를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그리하여 저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하

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역사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 믿음과 기대로 우리는 서울시청광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국권을 빼앗겼던 시절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받아서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도 안 된다. 역사의 변수가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갈 책무가 우리 세대에게 있는 것이다.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단상설치 등 성회 준비가 시작된다. 다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자.

한은택 목사

40일간 작정기도회 8월 22일(목) - 9월 30일(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6:4~20)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하나님은 32,500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며, 교회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또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잔소리로 간주하여 귀찮아합니다. '교회 가면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이렇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기에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 아닙니다. 약속을 안 지키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성적 오르면 자전거 사줄게', '매일 운동해서 살 빼면 옷 사줄게.' 하는 것은 나 잘되라고, 나 건강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이 선행 조건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3~6)는 약속의 말씀을 힘겨운 중에도 실천했습니다. 잠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잠시 풀무불에 던져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전하에 높이셨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는 약속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평생 봉사하고 살아도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

의에 서 우리 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죄를 자백하면',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게 잔소리입니까? 원수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약속으로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로 해결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

로 나 역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십일조'와 '헌물'이 드려질 때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 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6:17~18),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시89:34).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 빌린 돈의 이자를 내지 않거나 갚을 날짜를 어기거나 하면 어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되는 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병과 저주와 가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에덴동산에 쫓겨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삼손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예'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선행조건을 감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은 아이를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일에 앞서 행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황망해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를 말리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6~18)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까지 서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 대의 복을 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조건으로 내미신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내가 보낸 메아리가 내게 온다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골짜기 에 대고 ‘야!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메아리처럼 수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 집에 와 아버지에게 “아버지, 산에 못된 놈이 살아요. 나는 한 번 욕 했는데, 그놈은 수십 번씩 내게 욕을 해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아들에게 ‘사랑해요’라고 소리를 질러보라고 했다. 이내 그 못된 놈이란 녀석이 ‘사랑해요, 사랑해요...’하고 아주 착한 친구로 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보며 웃었다. 우리 인간들의 만남, 곧 가족, 이웃, 이웃 국가..., 그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그러나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온 것의 메아리일 뿐이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의 태도, 이웃 나라들의 태도가 내가, 우리가 보낸 태도의 메아리가 아닐까? 한 번 깊이 돌아봐야 한다. 우리 주변 국가들 속에 못된 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가? 그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지금이 우리의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외친 외침의 메아리일 거라는 생각이 필요한 때다.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계속 욕해대면 그 메아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스톱 할까? 10배, 100배로 계속 퍼부을까? 시청 기도성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기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랑한다는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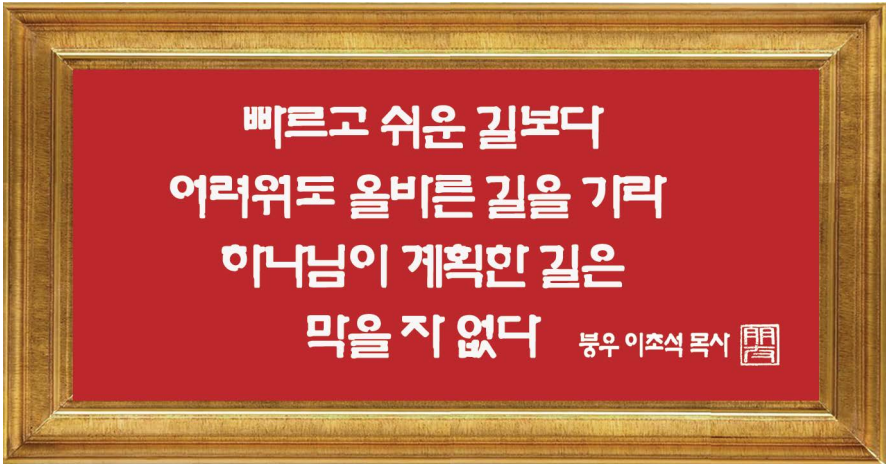
침을 외쳐야 아름다운 메아리가 돌아올 것이다. 주변 국가인 일본을 위해, 중국을 위해, 북한, 러시아, 미국을 위해 축복을 구하고 축복과 사랑을 외쳐보자. 돌아올 메아리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엢 5:28).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형제, 자매, 부모,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첩경이다. 내 이웃, 친구,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나라를 사랑하는 비밀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6~38),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다. 평생 남에게 좋은 것만 주자. 그리고 말로, 가마니로 받아보자.

이시대 목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잠16:2).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의인이다. 나름대로 천국 같만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의 착각이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을 향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 천국은 내가 나를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

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것을 잘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누리며 살다가 방탕하고, 징계 받고,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회복하여 축복받고, 방탕하고, 징계 받고... 계속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 이유를 성경은 증거한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버리고, 인도하는 분을 따르는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16:3).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회를 개최한다. 이제에는 나만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따르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김상욱 목사



:: 진리의 학당 ::

여자의 후손 (창세기 3:14~21)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시고 의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생명에게서 생명인 여자를 취하셨다. 그 이름을 하와라 함은 산 자의 어머니, 곧 싸워서 이기는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다(창3:20).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사람으로서 출생을 맞보고 마침내 죽음도 맞보실 인자가 되려고 그 길을 택하셨을 때, 그의 잉태와 출산을 맡을 산실로서의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요2:4).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겸손한 아들의 뜻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의로 인정하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빌 2:6~11).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노정에서 흑암에 갇혔던 마귀가 인자의 잉태와 출산을 맡을 여자를 타락시킴으로 인자의 참모습으로 보좌에 오르시려는 겸손하고 거룩한 기대와 소망과 뜻을 꺾어버리고 대적했으나, 하늘에서는 보좌를 대적하던 자가 음부에서는 인자의

길을 또 꺾어 대적했다. 마귀는 하늘에서는 심판받는 원수요, 땅에서는 인간사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마13:28). 그가 나사렛 사람, 곧 인자로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중 출생하시고 죽음을 맞보셨을 것이지만(사53:1~3), 그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는 세상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죽임 당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17). 그가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알려지고(행17:31), 죽음에서 이겼을 때(행2:24) 사탄의 머리를 깨는 자(창3:15), 대적의 문을 얻는 자(창22:17)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상과 책임이 마귀의 원수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가르치는 일이니(창

3:15)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교회요(계12:13~17), 마귀와 싸우는 곳이 교회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우리의 신분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산 자요, 승리자며, 교회는 마귀의 원수 된 승리자요 산 자다.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요2:4, 19:26)라 하셨는바 그 여자는 인자를 잉태하고 해산할 산 자의 어머니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이다. 때가 이르기까지 여자는 수태와 해산을 하는데, 자기 몸에 수태하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처럼 수태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원수 된 마귀의 원수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중, 마침내 마귀의 머리를 멸하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실 것이므로 그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승리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이의 어머니(창3:20). 이 일 이전에 그가 범죄함으로 열왕의 어머니 사라와 계집 종 마리아로 이어진다. 주님 생애의 절정은 뱀의 원수로서 발꿈

치를 상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이다. 한 인생이 세상은 동안 겪는 큰 전쟁도 이와 같다. 육신의 병마뿐 아니라 모든 유혹, 가난 등 온갖 불운 속에 살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요 인생역정으로 알고 체념한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셨으니 승리자인 성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전투의 전신갑주가 있다(엢 6:10~20). 생명으로부터 여자를 취하셨고(창2:21~22) 여자에게서 인자가 탄생했으니 인자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다. 여자는 마침내 산 자의 어머니가 되었고(창3:20), 여자의 원수는 마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자도 마귀의 원수로서 그를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이요(창3:15), 여자의 후손 모두는 마귀의 원수가 된 자들이니(계12:13~17), 이 같은 영의 사정을 아는 교회는 마귀의 계계를 박멸할 진리와 생명의 사도로서 각각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의 약속과 명령 따라 원수와 싸워 이기도록 진리로 살자.

박덕규 목사

우상, 그 처절한 싸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난 후, 가장 우선 시한 일은 우상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시택에서 제사를 거부하여 온갖 핍박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전도한 후에는 외가의 위패와 제사도구를 다 끌어내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내 인생에서 우상과 싸워야 할 일은 없겠다고 안심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과의 싸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미국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플(예배)이 필수과목이었고, 각 학과마다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오가 되면 학교 중앙에 크리스천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으나 전체 학생 중 크리스천의 비율은 어느 대학과 다르지 않았고, 당시 총학생회장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총학생회에서 고사를 지내려다가 한 크리스천 선배가 갑자기 나타나 고사상을 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몇 년간 조용했는데, 제가 학과 신우회 대표로 섬기고 있던 그 해에 총학생회에서 다시 고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학과의 신우회 대표들이 모여 ‘기독교 학교이니 고사를 막아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하였으나 강제할 수 없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신우회 대표들은 크리스천들을 모으고 고사가 진행되는 건물을 둘러싸며 기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학생회의 고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그 일을 계기로 졸업할 때까지 총학생회에서 고사를 지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절만 되면 관례에 따라 합동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참석하니 모든 장병들은 차례상 앞에 도열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 병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그에 따른 비난은 받으면 될 일이었으나 예수 믿는 병사들까지 그 자리를 피하게 할 힘이 초임장교인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직속상관이 저에게 그 시간에 해야 할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으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대열 중에 있던 크리스천 병사들을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직속상관이 바뀐 후에도 명절 때마다 그 임무의 필요성을 먼저 설득하고 크리스천 병사들이 우상 앞에 서는 일을 막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 소수를 제외한 한국교회는 과거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한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부흥의 땅이었던 평양에서 가장 규모

가 큰 조선예수교장로회가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1945년 해방된 후에도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자행한 측에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자 다툼이 일어났고, 이 다툼은 1950년 4월 대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그 후 2개월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에 밀려서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결했을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 우상숭배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찢었으나 낮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주실 하나님(호6:1)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켜오신 총회장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이며, 평화통일시대에 우리 교단에서 각 분야의 수장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각 분야의 수장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받고 있을 예수중심교회의 2세대, 3세대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며 철저히 우상과 싸워오신 총회장 목사님과 부모님들의 신앙의 지조를 잊지 마시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합시다! 부귀, 명예,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합시다! **정명관 성도**

첫인상의 효과

표정과 옷차림, 첫 음성과 제스처 등 첫 5초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오관의 여지가 있음에도 극히 짧은 시간에 이 표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곤 한다. 의복이 허술하면 낮게 본다든가, 고귀한 모습은 교양이 많은 사람으로, 예의가 바르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며, 상대를 깊이 아는 데 기초하지 않고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을 선택하여 단정 짓기도 한다.

이처럼 첫인상의 효과가 클에도 우리 주변에는 ‘내면이 선량하면 됐지.’ 하며 용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이는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기엔 효율이 떨어지는 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면접의 당락은 첫인상에서 80%가 결정된다고 한다. 진심 어린 태도, 신뢰감, 자신감은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동료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억울하게 본사로 호출 받게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체로 회사 자체 내에서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만큼 위생 부주의는 회사의 명예를 한순간에 실추시킬 수도 있는 중요사안이기에 전국에서 위생 위반으로 적발되어 모여든 몇몇 직원들에게 급여감봉은 물론이고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기로 소문난 ‘계도면담’이 있었다.

첫인상의 위력을 잘 알고 있던 나는 깔끔한 정장을 선택했으며 캐주얼 차림의 타 직원들과 차별을 극명히 했다. 고위 간부진들은 나에게 신중했고, 나의 말을 경청했으며 가벼운 훈계로 그 순간을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으며, 얼마 후 본사로 발령받았던 일이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미소, 친절, 부드러운 음성 등이 훌륭한 내면과 가다듬은 외모와 결합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 준다. 깔끔하고 단정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돋보이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추성숙 집사

:: From Internet ::

은혜

옛날에 한 부자집 노인이 창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머슴을 시켜 벼 가마니를 들어내는데, 마지막 한 가마니를 들어내려 하자 노인이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어라.”고 했다. 머슴은 “이 한 가마니는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라고 하자 노인이 “쥐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벼 한 가마니는 그대로 창고에 놓아두

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몇 해 후, 어느 날 머슴이 마당에 나와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슴은 바로 주인어른을 불렀습니다 “주인어른,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나와 보십시오.” 머슴이 급히 부르자 노인은 방을 나와 마당에 나갔습니다. 나와 보니 글썽 큰 쥐 한 마리가 머리에 꼭박을 둘러쓰고 뜰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 기이한 일도 있다 생각하는 순간, 노인이 거하던 집이 굉음을 내며 그

만 폭삭 내려앉아 버린 것이 아닙니까? 자연재해나 이상징조는 동물들이 더 빨리 알아챈다고 하더니, 노인이 남겨놓은 벼를 먹고 자란 쥐가 집의 징후를 느끼고 주인의 목숨을 건질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집승도 이렇게 은혜를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상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2019년 10월 1일 (화) 오후2시 서울시청광장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